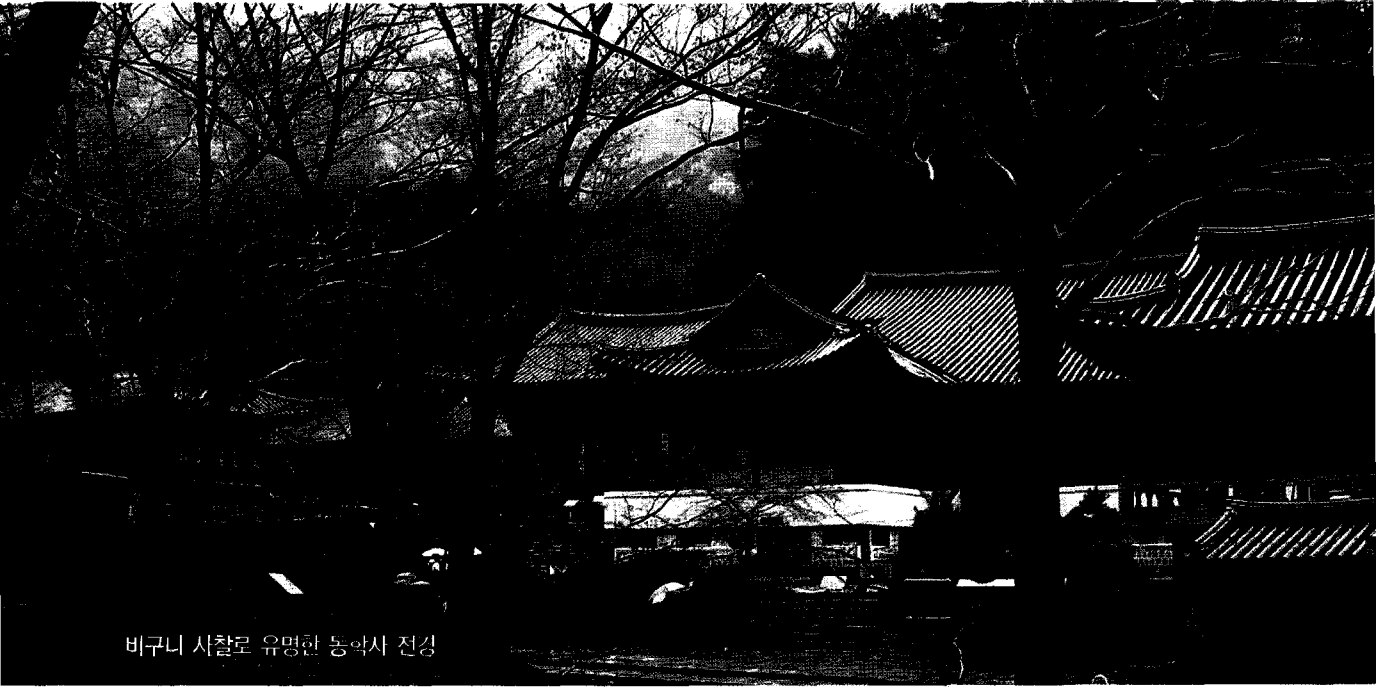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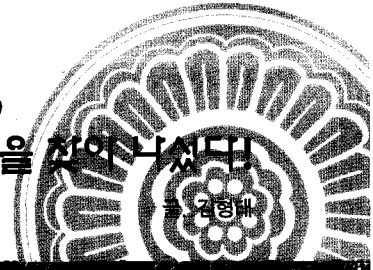


# 충남 공주의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아 나섰다



비구니 사찰로 유명한 동약사 전경



## 충절의 고장, 충남 공주의 “계룡산”을 찾아

대망의 2002년을 아쉬워하듯 곳은 가랑비가 하염없이 흘날리는 11월의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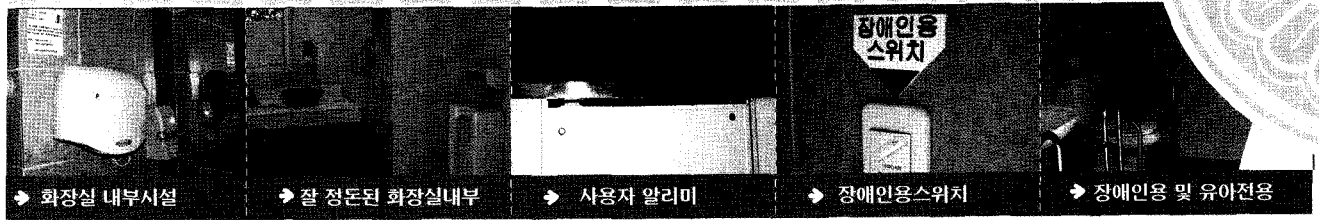
충절의 고장, 충남 공주의 계룡산을 찾아 나섰다. 기차로 대전역에 도착하여 버스로 1시간여를 달리면 온천으로 유명한 유성에 닿는다. 유성은 특히나 정부에서 정보기술특화지역인 대덕연구단지와 2002년 월드컵 대전경기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전의 명소이기도하다. 대전에서 시 외곽으로 조금만 지나면 “역사의 고장 공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차창에 뿌려대는 겨울비에 잠시 명산

에 빠져들 때쯤 충남의 명산 ‘계룡산 국립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그칠 줄 모르는 겨울비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보였다.

## 계룡산 국립공원 화장실의 관리실태

필자는 먼저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둘러보고자 이곳저곳을 찾아보았다. 역시나 공원 내 화장실은 인상적이지만큼 여러면에서 만족할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중앙에 위치한 두개의 공중화장실은 다소 규모는 적어보였지만 등산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 또한 양호하였다.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는 화장실 실태 점검표에는 빠짐없이 청결 및 시설점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담당자의 연락처와 사진, 실명을 부착하여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게시물은 인상적으로 보였다. 여타 공중화장실의 경우 형식적인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계룡산 입구에서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 화장실 내부시설      → 잘 정돈된 화장실내부      → 사용자 알리미      → 장애인용스위치      → 장애인용 및 유아전용

공원 내 화장실의 관리상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화장실 뒤편에는 자연정화 및 오폐수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 작은 배려 또한 이용자에게 때로는 감동의 물결로...

처음 찾은 이곳, 계룡산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흔히 산 이름보다 비구니사찰로 유명한 동화사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산 입구에서 약1Km 정도를 올라가면 그리 가파르지 않은 산행으로 동화사를 가게 된다.

『 동화사의 최초창건은 남매탑 전설에 전해지는 상원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신라시대에 상원조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가 입적한 후, 724년(신라 33대 성덕왕 23) 그곳에 그의 제자 희의화상이 쌍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 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920년 경 진 (고려태조 3)에 왕명을 받아 여기 도선국사가 중창하였다. 국사가 원당을 건립하고 국운옹창을 기원했다해서 태조의 원당이 라불리웠는데, 이 원당은 조선초에 소각 되었고, 태조 19년 병신(936년)에 신라가 망하자 신라의 유신으로서 고려 태조 때 대승 관 벼슬을 한 유차달이 이 절에 와서 신라의 시조와 신라의 충신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계사(東谿士)를 짓고 절을 확장한 뒤 절 이름도 지금의 동화사로 바뀌었다. 』



→ 화장실관리지      → 시설관리점검표      → 오폐수정화시설      → 깨끗한 내부시설      → 남자화장실 소변기

초겨울 산행이어서인지 단풍의 절경은 온데간데없고 스산한 기분마저 들었지만 역시 한국의 명산답게 의연함과 나름 대로의 절경을 볼 수 있었다. 20분여 산행을 시작하니 산 어귀에 또 다른 공중화장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화장실은 입구 광장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내부의 기본 시설 또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애인 전용실과 어린이이를 위한 베이비시터, 손 건조기, 자동 전동 스위칭 시스템 등은 국립공원 내 화장실의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하고 있었다. 동화사 입구에 도착할 때쯤 색다른 풋말하나가 더욱이 인상적이었다. 공중화장실이 이 곳이 마지막이라는 안내표시인 것이다.

### 변해가는 화장실 - 철저한 시민의식

그렇지만 동화사 입구에는 또 하나의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 계룡산 국립공원에만 크고 작은 5개의 공중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필자는 이번 기행을 통해, 잘 지어진 공중화장실도 중요하겠지만 깨끗이 이용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금 변화해가는 화장실의 문화개선 운동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 또한 철저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